

# 세계화 시대의 사범대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이삼형\*\*

## <차례>

1. 세계화와 경쟁
2. 무한 경쟁 시대와 국어교육
3. 국어교육의 현실태와 국어교사
4. 사범대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5. 제도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

## 1. 세계화와 경쟁

세계화는 21세기의 중심 화두이다. 세계화는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해 지금까지 존재하던 지역 및 국가 사이의 장벽이 제거되어 세계가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한다. 이러한 추세는 사람과 상품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정보의 흐름을 빠르게 소통시켜 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과 국가의 경계가 약화되어 지구상의 국가들이 하나의 생활권, 문화권으로 뮤여 가고 있어서 지구촌이라는 용어가 실감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

\* 본고는 2007년 4월 23일 ‘상명교육 70년 사범대학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일부 수정한 것임.

\*\* 한양대학교

세계화는 세계시장의 광역화와 통합을 가져와 국가 간, 지역 간, 기업 간, 계층 간, 개인 간 경쟁의 양상을 바꾸어 놓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쟁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세계화 시대에는 지역과 국가를 뛰어넘어 세계와 경쟁하게 되며 무한 경쟁의 양상을 띠게 된다. 이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다국적 기업을 넘어서서 초국적 기업으로 발전하게 되지만, 경쟁에서 밀린 기업은 도태하여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삼성전자가 세계 유수의 회사로 우뚝 선 것과 현대자동차가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뿐이랴. 허브 공항을 두고 우리의 인천 공항은 인접 국가의 다른 공항과 경쟁하고, 부산항은 중국의 상하이와 경쟁하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경쟁은 개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재를 한국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채용하는 사례는 이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LG전자가 국적을 불문하고 능력 있는 외국인 인재를 적극 키워나가기로 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다(해럴드 경제, 2006년 7월 17일). 단순히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르겠다고 나선 것이다. 물론 지금 까지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 대상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인까지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세계화 시대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며, 그 결과 우리들도 세계인과 경쟁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교육이 빗겨 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교육도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징표들을 주위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매년 많은 수의 아이들이 외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나는 현상이나 무슨무슨 특구에 외국의 유명 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약방의 감초처럼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징표들이다.

국어교육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국어교육은 이런 경쟁 코드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어를 가르치는 일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일지 모른다.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세계화 시대에서

경쟁에 필요한 언어는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영어가 세계 공용어의 위치에 있다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계화 시대의 모든 경쟁력이 영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분명 영어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나 그것이 전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업을 예로 들면, 기업은 세계 일류 상품을 만들어야 경쟁력을 갖는다. 그런데 일류 상품을 만드는 것은 영어 능력이 아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숙련된 기술, 도전 정신 등이 어우러져야 일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상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한 몽골족의 경쟁력이 영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국어교육은 세계화 경쟁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고, 그 경쟁력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이 국어교육의 핵심이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사범대학 국어과의 사명이다. 그래야 이 치열한 경쟁 시대에 국어교육이 무언가 공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국어교육이 세계화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논의하고, 제3장에서는 국어교육의 현실태에서 국어교사의 역할을 살펴본다. 2장과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제4장에서 사범대 국어과 커리큘럼의 개선 방향을 큰 테두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2. 무한 경쟁 시대와 국어교육

이제 국어교육이 세계화와 무한 경쟁 시대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차례이다. 우리의 이야기를 서점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서점의 경영학 코너에는 대개 소위 성공학과 관련된 책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다. 여기에는 경영과 관련된 책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화의 기술』, 『설득의 심리학』, 『메모의 기술』 등과 같이 경영학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책

들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대화, 설득, 메모 등은 국어교육의 교육 내용에 등장하는 개념 또는 활동들이 아닌가? 국어과 교육과정을 잠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7학년 듣기〉

- 성취기준 (1) 수업을 듣고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한 내용을 **메모**한다.

(2) 광고를 보거나 듣고 **설득**의 전략을 파악한다.

말하기 성취기준 (2) **대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호소력 있게 말한다.

(4) 말의 내용이나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며 **대화**를 **나눈다**.<sup>1)</sup>

왜 성공학 코너에 그러한 책들이 여러 종류 진열되어 있는 것일까? 메모의 기술, 설득의 방법 등이 성공학에서 대접을 받는 이유는 그것들이 삶에서 하는 역할 또는 기능 때문일 것이다. 메모는 국어사전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거나 자신의 기억을 돋기 위하여 짤막하게 글로 남기는 일이나 그 글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메모는 기억을 돋는 보조 장치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보조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는 잘 알려져 있다.<sup>2)</sup> 설득 또한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하다. 상품을 파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아 설득하는 행위이며, 광고, 선전 등이 모두 설득의 범주에 들어간다. 설득의 기능이 넓고 그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은 설득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메모의 중요성이 보조 장치로서의 기능에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보조 장치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메모는 보다 근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메모는 기억을 돋는 보조 장치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데 도움을

1) 2007 국어과 교육과정(굵은 글씨는 필자).

2) 국어교과서에 <메모팡>이란 글이 실려 있던 적도 있었다.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린다 플라워(1998, 93쪽)는 글쓰기의 강력한 전략으로 메모기법을 들고 있다. 문장을 쓰거나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하려고 할 때,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종이에 그 생각의 편린들을 시작적으로 옮겨 적어보면 보다 쉽게 글을 쓸 수 있다고 한다. 메모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여러 대안적인 구절들을 쓸 수 있고, 순서도나 수형도·괄호·도표·화살표 등과 같이 요소들 간의 관계를 보여 주는 시각적 표지들을 사용할 수도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메모의 중요성보다 메모하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셈인데 이는 메모하기가 텍스트의 이해와 아이디어 생성에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설득 또한 그 쓰임새가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하다는 기능적 측면에 그 중요성이 한정되지 않는다.흔히 설득을 상대방이 이쪽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일방적 작용하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명령이다. 설득은 상대방과 이쪽 쌍방이 협조적이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타협과 상호 교섭이 일어난다. 이러한 타협과 상호 교섭은 고도의 사고과정이다. 설득의 효용성이 클수록 이러한 사고과정의 가치는 더하게 된다.

국어교육은 언어교육이며, 언어교육은 텍스트의 이해와 산출 교육이다.<sup>3)</sup> 그런데 텍스트의 이해와 산출에는 사고의 기본 기능은 물론이고 복합적인 사고 기능 나아가 상위인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sup>4)</sup>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언어영역에서 사실적 이해, 추리·상상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로 그 목표를 나눈 것은 텍스트 이해에 작용하는 사고들을 고려한 것이다. 텍스트의 산출도 마찬가지이다. 글쓰기를 예전에는 생각이나 느낌을 문자 언어로 옮기는 것을 중심이라 생

3) 언어교육의 개념에는 ‘언어에 대한 교육’, ‘언어를 통한 교육’도 가능하나 여기서는 언어교육을 말한다.

4) 사고는 연구자의 관점이나 목적에 따라 범주화되었다. 블룸이 교육목표분류학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사고 기능인 기억,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는 비교적 기본적 사고 기능에 속하는 것이라면 문제해결력과 같은 사고는 이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복합적인 사고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삼형 외(2007)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다.

각했다면 지금은 사고 과정이 글쓰기의 중심이 되었다. 예전에는 글쓰기라 함은 문자 속이나 있는 사람들이 시를 읊조리는 것이라 생각했으며 그러한 전통은 아직도 백일장이라는 글쓰기 대회에 남아 있다. 물론 이러한 운문, 산문 쓰기도 글쓰기의 주요한 양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업에서, 학문 세계에서 쓰는 글은 그런 류의 글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이다. 이를 위해서 문제를 분석해야 하며, 관계되는 요소들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며, 그 속에서 문제해결을 통찰해 내야 한다. 이와 같이 글쓰기를 문제해결 과정으로 보는 것은 이제 상식처럼 되어 있다. 결국 텍스트의 이해와 산출은 기본적 사고와 복합적인 사고가 모두 어우러져 일어나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은 것이다.

위에서 말하는 기본적, 복합적인 사고가 어찌 텍스트의 이해와 산출에만 한정되는 것이냐고 물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 이해와 산출에 작용하는 사고는 국어교육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어교육의 고유 영역이 무엇이냐, 또는 국어교육의 내용은 무엇이냐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 닿아 있다. 국어교육의 정체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언제나 이야기되는 것이 국어교육의 고유 내용 영역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역사학은 역사학 고유의 내용 영역이 있으며, 물리학은 그 고유의 내용 영역이 있다. 국어교육이 텍스트의 이해와 산출을 말하지만, 역사학과 물리학도 그 학문 공동체 나름의 텍스트를 만들어 내고 이해된다. 그를 통해서 학문적 연구 성과들이 소통되며, 해당 학문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 텍스트가 텍스트이기 위해서는 무엇에 관한 것이며, 그 무엇은 필시 역사학 또는 물리학 또는 다른 학문(교과)과 관련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국어교육의 고유의 지식 영역이 무엇이냐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필자는 그것을 소위 교양 또는 상식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세계지식 (world knowledge)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분명 물리학자가 물리학이라는 학문 공동체에서 쓰는 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쓰는 글은 다를 것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쓴 글은 결코 물리학 학문 공동체에 속하는 본격적인 텍스트라고 보기 어려우며 물리학의 세계에서 교양의 세계로 넘어오거나 경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리학 학문 공동체

에서 산출되는 텍스트는 수식과 기호로 주로 표현될 것이다나 교양의 세계로 넘어오면 달라질 것이다. 가능하면 수식과 기호는 사용하지 않고 언어로 풀어낼 것이다. 물리적 현상을 일반인에게 익숙한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거나 현실 세계에서 접할 수 있는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 할 것이다. 이런 텍스트는 물리학 고유의 텍스트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텍스트의 이해와 산출에 작용하는 사고가 국어교육의 고유 영역이 된다.

우리네 삶에서 교양 또는 상식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으며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 석양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정서와 관련된 부분,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다른 사람들과 협의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몫과 그것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쉽게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서점의 성공학 코너에 대화, 설득에 관한 책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도 이해된다. 이런 일들을 수행하고 처리하는 사고 영역을 국어교육이 담당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있다.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그림, 사진, 음악 등이 융합된 멀티텍스트가 언어적 텍스트를 대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문식성(literacy)의 개념을 재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물론 정보화 사회에 맞게 언어적 문식성에서 다매체 문식성으로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문식성의 기본이 되는 분석, 비판,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 흐름이 가속화되는 미래 사회 환경에서는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수집된 정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비판적인 능력, 적절한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형하며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는 창의성이 중요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도 새로운 것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분석, 비판, 창의적 사고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다. 다만 현대는 기존의 언어적 매체 중심에서 새로운 매체로 변화해 나가는 시기이며, 그 변화의 진폭이 매우 크다는 데 놀라울 따름이다. ‘21세기 문식성 정상회의’에서 21세기 문식성의 특성을 기술적 문식성, 정보 문식성, 매체 창의성, 사회적 능력과 책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 문식성

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인쇄술이 발달함에 따라 글을 읽는 능력이 중요하게 된 것처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기술적 문식성이 중시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시대의 변함에 따라 중시되는 문식성의 성격이 조금 바뀔 뿐이지 근본적인 사고 능력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사고는 결국 텍스트를 이해하고 산출하는 능력의 다름 아니다. 여기에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국어교육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 3. 국어교육의 현실태와 국어교사

#### 1) <바다와 나비>의 수업 풍경 – 텍스트 이해 능력

매년 4학년 학생들의 교생실습 기간 중에 대표수업이란 것이 있다. 어느 해 중3 교과서에 나오는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를 가지고 하는 대표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시에 대한 해석을 문명 또는 근대와 연결시키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한국 근대시에서 ‘바다’는 최남선의 <해에서 소년에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힘과 문명의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다가 새로운 세계라면 나비는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서는 주체가 된다. 그러나 중3 학생들은 바다가 근대시에서 새로운 문명을 표상한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물론 이런 경우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작품을 제시하여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수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관찰한 수업은 그런 장치가 없었다. 그냥 바다는 새로운 문명이었다.

국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바다와 나비>를 새로운 문명과 관련시켜 이해하는 것은 문학 연구자나 비평가들의 이해를 그대로 전수받는 것에

불과하다. <바다와 나비>에는 바다가 새로운 문명을 암시한다고 여길 어떤 단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기에 바다를 문명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 호기심 많은 중3학생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다는 잘 알지 못하는 어른들의 세계가 되고, 나비는 어른들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어느 청소년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기의 그런 호기심의 발로는 대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상례라고 한다면, 그 시에서 날개가 젖어 돌아오는 나비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날의 수업은 텍스트는 열려 있는데 학생들을 매우 좁은 시각이나 주어진 시각에서만 텍스트를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의 시 수업은 어떤 권위 있는 해석에 기대어 학생들에게 그 해석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나쁘게 말하면 강요하는 것이며, 이런 강요된 해석을 통해서는 참다운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며 비판적이며 창조적인 문식성도 길러질 수 없다.

이런 권위 있는 해석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 국어수업의 오랜 병폐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수업은 어느 한 예비교사의 수업에 불과하며 오랜 경력을 가진 교사는 그런 수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몇십 년 동안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시라고만 가르쳐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예비교사의 수업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권위 있는 해석에 매달리는 수업을 하게 된 책임을 국어교사에서만 돌릴 수는 없다. 시험 성적에만 관심을 갖는 우리 교육 현실의 중압감 아래에서는 하나의 정답만을 인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끄러움을 만들지 않는 일이다. 또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 교과서와 그에 대한 교사용 지도서도 하나의 권위 있는 해석만을 제공해 주는 데 일조하였는지도 모른다. 또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같은 형식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우리의 평가 제도에도 책임을 돌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문제의 원인을 국어교육 외적에서 측면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외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책임을 모두 외부로 돌리는 것은 문제를 바로 보고 해결

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다시 <바다와 나비>로 돌아가 보자. 국문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의 바다는 문명의 표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국문학 연구자들이 하는 일이 작품의 해석 지평을 부단히 넓혀가고 있는 것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당대의 학문적 수준과 해석 공동체의 합의는 항상 존재한다. 당대의 학문 수준과 합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어교사의 경우는 합의된 해석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어교육은 학습자가 해석주체가 되며, 그 해석주체는 현재 인지적, 정의적 발달 과정에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해석 수준은 당대의 학문 수준을 따라가기 어렵다. 단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안목으로 작품을 바라볼 뿐이다. 국문학자의 눈에는 미숙할지 모르지만 국어교육자의 눈에는 의의가 있다. 여기가 국문학적인 접근과 국어교육적인 접근이 다를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국어교육을 ‘국어국문학+교육’, 즉 국어국문학과 교육의 단순 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다. 권위 있는 해석에 의존해서 바다를 문명이라고 가르치는 것도 그 한 예이다. 그러하기에 국문학의 국어교육적 변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르게 말하면 국문학의 것을 그대로 직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교육의 시각에서 국문학의 것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사의 작품 해석 능력도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다. 작품에 대한 해석 능력이 떨어지면 권위 있는 해석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유로운 해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작품에 대한 해석 능력은 문학 작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문학 작품이 아닌 글에도 해석 능력과 비평 능력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필자의 의도가 음흉하게 숨겨진 글도 있고, 편향된 시각에서 바라본 글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이런 글들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비판하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나 참고서에 의존하는 우리의 국어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품(글)에 대한 해석 능력과 비평 능력을 갖춘 교사를 사범대학에서 길러야 할 것이다.

## 2) 고3 교실 풍경 – 무방법에서 벗어나기

현재 대학 입학제도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앞으로 수능이라고 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래서 고3 교실은 그 시험 준비를 위한 장이 된다. 지식 중심의 평가였던 학력고사의 대안으로 등장한 수능은 단순 지식의 평가를 지양하고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시험 출제 경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왔다고 평가된다. 언어 영역에도 같은 정신이 적용되어 지식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교과서에서 지문을 가져오던 기존의 관례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장 국어교사들이 감당하기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교과서에서 지문이 출제되었으므로 수업의 내용도 자연스럽게 교과서 지문의 내용과 그에 관련된 것이었다. 즉, 지식 중심이었다. 그러나 수능이 도입됨에 따라 지식 중심의 수업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학생들이 처음 대하는 지문에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하고, 비판하고, 적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글을 읽고 이해, 추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예비 교사 시절에 배운 바가 없으므로 막막했을 것이다.

수능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다. 그렇다면 수능이 도입되었을 때, 교사들이 당황했던 것이 현재는 크게 개선되었을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고3 교실에서 수능에 대비해서 문제집을 푸는데, 그 시간에 국어 교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설과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의 전수에 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해설과 기법의 전수는 수능 점수를 높여주는 데 기여할지는 모르나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텍스트 이해 능력을 길러주는 수업이 되지 못함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의 고3 교실 수업의 문제는 문제집을 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이해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는 것에 있다.

10년이 지나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어교육의 문제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할까? 그 책임을 국어교사에 돌리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예비교사 기간에 그러한 방법을 배웠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비교사 기간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어떻게 교실 현장에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어찌 고3 교실에서만이 문제이랴. 우리는 읽기 시간에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신장시켜 주었는지, 쓰기 시간에는 쓰기 능력을 신장시켜 주었는지 물어야 한다. 즉, 읽기 시간과 쓰기 시간에 교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 진지한 물음에 터 해서 사범대학의 국어과 교원 양성 교육은 변화해야 할 것이다.

### 3) 실기평가가 된 수행평가－진단과 처치

우리 교육 현장에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수행평가의 도입이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탐색, 수집, 분석, 비판, 종합, 창출할 수 있는 고등정신 능력의 강조는 새로운 방식의 평가 방법을 요구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교육목표, 교육방법 및 교육평가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비정상적인 측면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평가방법이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수행평가는 미래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평가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평가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일반적으로 수행평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학생이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정답을 작성(서술 혹은 구성)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평가방식이며, 교육목표의 달성여부를 가능한 한 실제 상황 하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평가방식이며, 교수·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의 과정도 함께 중시하는 평가방식이며, 단편적인 영역에 대해 일회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변화·

발달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체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평가가 점수화를 통해서 서열화,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는 역할만 수행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평가의 본질을 찾자는 것이다. 따라서 수행평가의 핵심은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기술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명의(名醫)는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에서 탄생한다고 한다. 만약 수행평가가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정확히 기술할 수 있다면 우리 교육은 분명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명의가 그러하듯이 교사들이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교육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높이는 바른 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새롭게 도입된 수행평가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행평가라고 이름이 붙은 평가는 실시하는 데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진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수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같이 수행평가가 점수화에 그친다면 이는 실기 평가의 다른 아니며, 따라서 새로운 평가도 대안적 평가 방식도 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진정한 의미의 수행평가가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면도 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외부에 돌릴 수 없을 것이다. 내부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국어교사들이 학생들의 텍스트 이해와 산출의 과정에서 갖는 어려움을 정확히 진단하고 기술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사범대학에서 예비 교사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범대학에서 예비 교사들에게 이러한 정도까지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방향은 옳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른 방향이면 그 방향으로 천천히 나아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4) 맥락화되어 있지 않은 학습활동 따라하기－교재 재구성하기

교육 현상에서 교수·학습자와 함께 주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 교과서이다. 특히, 제7차 교과서까지 국어 교과서는 국정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교과서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어 교과서를 신성시하는 풍조가 생기기도 하였다.

전통적으로 국어 교과서는 읽을거리 중심의 독본형이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런데 독본형 교과서는 하나 이상의 글을 묶어서 한 단원으로 편성한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예를 보이면 ‘효과적인 표현’이라는 단원에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이라는 글과 <눈길>이라는 소설이 나온다. 단원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교과서는 목표 중심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그 단원의 제재는 목표에 적합한 활동을 하기 위한 자료의 성격을 띤다. 자료는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학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설명문과 논설문과 같은 비문학적인 글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은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이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글을 읽는다. 물론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하나의 예화를 들어보자.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엄청난 테러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 서점가에서 이슬람 문명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등장하였다고 한다. 이는 왜 이슬람 과격 단체들은 미국을 적으로 삼고 있는 것인가를 알기 위한 것이며, 그 사건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문명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학습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변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이슬람 문명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슬람 문명에 관한 글은 살아있는 글이 된다.

그런데 목표 중심 단원의 편성은 이러한 맥락을 제공해 줄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 목표 중심 단원은 목표 기능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고 활동

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제7차 중학교 교과서의 읽기 단원에서 ‘읽기 전 활동’이 새롭게 신설된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고무적인 발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새롭게 시도된 읽기 전 활동이 맥락을 제공해 주기 보다는 배경지식, 흥미 유발 등에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글의 맥락보다는 다른 이론적 배경에 입각해서 설정된 체제이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 교사의 몫이다. 목표를 고려하여 교과서를 재구성하도록 교육과정은 권장하고 있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교사는 많지 않다. 몇 년 전에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내던져버린 국어수업』이란 책을 낸 적이 있다. 이제 교사들 사이에서 교과서를 재구성 하려는 움직임이 있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책에는 아래올기적인 면에 치중하거나 학생들의 흥미 면만이 과도하게 강조된 느낌이 들었다. 그러한 시도 자체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텍스트 이해와 산출이라는 본질은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충실한(?) 수업을 제일의 미덕으로 삼는다. 교과서 중심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만한이 없거나 비판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교과서를 따라하는 데 충실했다. 학생들은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이라는 논의가 왜 필요한지, 그런 논의의 사회적 맥락을 모른 채 글을 읽는다. 그런 읽기는 살아있는 읽기가 되기 어렵다.

현재의 책 중심의 교과서는 이런 맥락화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종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면이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그러나 그 몫을 감당할 능력을 교사들은 예비 교사 시절에 충분히 기르지 못했다. 교사 양성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 4. 사범대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 1) 텍스트의 이해와 산출 능력의 중시

현재 사범대 국어과 교원 양성 교육의 실상을 살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범대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일이다.<sup>5)</sup> 김혜영(2006)은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크게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분류하여 그 세부 과목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교과교육학		교과내용학	
국어과교육론, 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국어교육과정론, 국어교수학습론, 국어과평가론	화법교육		
	독서교육		
	작문교육		
국어지식교육	국어음운교육론, 국어이휘교육론, 학교문법지도론, 국어정서법지도론, 국어통사지도론, 국어학교교육연습, 고문법교육론, 언어학과 국어교육, 국어학자료교육론, 중세국어 문법교육론, 국어사교육론 등	언어학개론, 국어음운론, 국어통사론, 국어의미론, 국어화용론, 국어문법론, 국어정서법, 국어사, 국어방언론, 중세국어강독 등	
	문화교육	고전시가교육론, 고전소설교육론, 현대시교육론, 현대소설교육론, 구비문학교육론, 수필지도론, 작가작품지도론, 창작지도론, 고소설교육자료 강독, 문예사조교육, 국문학 교육연습 등	국문학개론, 현대소설론, 현대시론, 고전소설론, 고시가론, 회곡론, 수필론, 한국문화사, 문예비평론, 문예창작 감상론, 문예사조론, 작가연구방법론 등
a	b	c	d

5) 사범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몇몇 연구를 들면 임칠성(2003), 김혜영(2006), 최지현(2006) 등이며 그 밖의 연구들은 위의 연구들에서 참조할 수 있다.

김혜영(2006)은 사범대학 국어과 교육과정은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선별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며,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는 a와 d가 중심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b와 c계열의 교과목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각 사범대학에서 선택한 과목의 수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a, b, d가 국어과 교육과정 교과목의 중심 계열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c계열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모색의 단계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김혜영(2006)이 위에서 제시한 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성은 사범대 국어교육과의 과목들이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으로 이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d계열은 순수한 국어국문학 과목들이다. 김혜영은 c계열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어국문학 과목인 d계열에 교육을 단순히 덧붙인 느낌이 강하다. d계열에 준하는 과목으로 보아야 한다. 남는 것은 a계열과 b계열인데, a계열은 일반 교육학에 국어과라는 교과명을 붙인 것으로 일반교육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국어교육과정론에서는 일반 교육과정론이 아닌 국어과의 교육과정을 다루며, 국어교수학습론은 일반 교수학습론이 아닌 국어과 교수학습론이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일반론에 터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순수한 국어교육의 독자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b계열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분석해 보아도 국어교육 순수 과목들이 너무 소략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국어국문학의 비중이 너무 과도해 보인다. 물론 국어교육 과목들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국어교육학 전공자들의 책임도 있지만 이런 모습은 국어교육을 ‘국어국문학+국어학’이라고 보는 전통적 관점에서 유래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이런 과목 구성으로 제3장에서 살핀 국어교육의 현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국어교사를 양성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본고는 무엇보다도 사범대학 국어과 학생들은 텍스트의 비판적 해석과 창의적 텍스트 산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비판적 해석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해석

이나 해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나 지도서나 참고서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교사라면 학생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발산적 사고의 발현을 감당할 자신감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현행 사범대학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능력과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을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디에서 그러한 능력을 길러야 하는가? 현재의 사범대학 교과목 구성은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일을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현재 사범대학 교과목이 국어국문학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의 또 다른 문제점은 텍스트의 유형이 문학적 텍스트에 한정되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문학 텍스트가 우리 언어문화의 정수라는 것은 십분 이해하고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텍스트는 문학적인 텍스트가 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협상을 위한 담화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논쟁하는 텍스트를 자주 만나게 되고, 실생활에서는 그것이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문학적 텍스트만을 심도 있게 분석할 것이 아니라 협상에 성공적인 담화의 특성도 깊이 있게 분석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른 비문학작품들의 분석도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을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도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들 텍스트들이 갖는 특성에 대한 분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학문적 체계가 발달하지 않은데 기인한다. 그러나 화용론, 담화분석에 대한 이론이 등장하면서 이를 담화에 대한 분석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세 이후 몰락했던 수사학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위에서 c계열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는 점도 염려스러운 점이다. c계열의 과목이 국어교육을 국어국문학에 교육의 단순 합이라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발전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전시가교육론’이라는 과목을 생각해 보자. 이 과목이 고전시가론과 교육을 단순히 합한 것이라면 학생들이 고전시가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둘 것이다. 그것은 대개 국문학자들의 해석을 존중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과목은 이전의 고전시가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어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나름으로 고전시가를 읽도록 해야 한다. 즉, 학생들

이 고전시가를 어떻게 읽을까, 왜 그렇게 읽을까 등에 관심을 갖는 고전시가교육론이라면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전시가 교육론이 된다. 전자에 관점에서 과목을 개설했다면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범대학 교육과정은 현재의 국문학과 과목 중심에서 벗어나는 일부 터 시작되어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국어국문학에 바탕을 둔 계열의 과목들보다는 텍스트의 이해와 산출이라는 국어교육 고유 영역과 관련되는 과목들이 대거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현장 연구와 평가의 중요성 강조

사범대학 국어과 교과목들이 ‘국어국문학+국어교육’의 단순 결합인 경우는 국어국문학의 연구 성과들이 교육내용이 되고, 국어교육은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바다와 나비>의 수업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범대학 교과목들의 교수·학습관은 객관주의적 인식론에 근거하는 전통적인 교수·학습관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문학작품에 대해 권위 있는 해석에 기대어 교수·학습하는 것은 지식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인식론은 객관주의적 인식론에 대안으로 구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구성주의는 지식의 형성과 습득을 개인의 인지 작용과 개인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비추어 설명하는 상대주의적 인식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관점은 읽기와 쓰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선 읽기는 텍스트의 이해는 텍스트 속에 존재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읽기 교육의 목표는 능동적인 독자를 기르는 것이다. 쓰기에서의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은 글쓰기를 형식적인 작문 모형에서와 같이 객관화된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도 아니고 개인적인 의미 구성 과정도 아닌 독자 또는 사회 공동체와의 상호 작용을 통한 사회적 행위로 간주한다.

읽기 수업에서 구성주의적 관점에 서게 되면 동일한 작품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인정하게 된다. 개인의 의미구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수업은 구성의 주체인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게 되고, 학습 내용과 학습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학생 스스로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며, 다양한 관점들을 경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업은 기본적으로 사례 연구(case-study)인 성격을 띤다. Myers(1991)가 말하는 교육적 지식의 핵심은 교수 이론이 아니다. 오히려 교수 이론은 사례 목록(the catalogue of case)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그는 교육적 지식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탐구방법이 있어야 하며, 그 탐구방법을 기초로 한 사례연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읽기를 독자의 의미 구성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거기에 더해 개인 발달의 차를 생각해 보면 교수·학습이 사례 연구적인 성격을 띤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시 김혜영(2007)이 제시한 사범대학의 교과목으로 가 보자. 교수·학습의 사례연구적인 성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목은 a계열의 과목인데 현재 사범대학에 제시된 과목들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역부족이 아니라 이런 관점을 수용조차 하지 않은 교과목 구성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사례 연구 개념으로의 교수학습 방법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이론적 수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사례에 대한 탐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학교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사범대학 국어과 교육은 실습 과목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아울러 인턴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범대학 외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 5. 제도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

국어과 교원 양성 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범대학 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지만 사범대학 외, 즉 제도적 차

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도 있다. 그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범대학 교육 연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교원전문대학원과 관련된 문제라서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4년제가 전문인으로서의 국어교사를 양성하는 데 충분한 수학연한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졸업에 필요한 140학점 중에서 교양필수, 일반선택 등의 학점을 제외하면 전공학점으로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그리 많지 않다. 거기에 현재 임용고사 제도가 부전공 가산점을 인정하여 학생들은 부전공을 이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어서 학생들이 전공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sup>6)</sup>

위에서 국어 교사들의 연구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과 사범대학이 긴밀한 협조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밖에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는 데 제약이 되는 다른 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측면으로 모든 문제를 돌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다시 검토하여 유능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내적 변혁이 요구된다. 그 중심에 텍스트의 이해와 산출 능력이 있고, 학생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사례 연구 중심의 교과목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6) 부전공 가산점 제도가 폐지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 본 논문은 2007. 11. 11. 투고되었으며, 2007. 11. 13. 심사가 시작되어 2007. 11. 29.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혜영(2006), “사범대학교 국어과의 교사교육체제와 지향점”, 『국어교육학연구』 제26집, 국어교육학회.
- 린다 플라워 지음, 원진숙 · 황정현 옮김, 『글쓰기의 문제해결 전략』, 동문선, 1998.
- 윤희원(1990), “국어과 교사의 자질과 그 양성”, 국어교육 개선 방안 연구 학술 세미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임칠성(2003), “국어과 교사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사대 국어교육과 교육과정, 『국어교육학연구』 19집, 국어교육학회.
- 천경록(2005), “국어과 교사의 읽기 영역 평가 전문성 기준과 모형”, 『국어교육』 117, 한국어교육학회.
- 최지현(2005), “중등학교 국어과 수업 평가의 한 방향”: 사범대학과 중등학교의 연계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24집, 국어교육학회.
- 최지현(2006), “국어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국어교육학연구』 제26집, 국어교육학회.
- Goodwyn, A.(1997). Developing English teachers, Open University press.
- Myers, M.(1991), “Issues in the restructuring of teacher preparation.” In. J. Flood, J.M. Jensen, D. Lapp & J. R. Squire(Eds).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the English language arts, Macmillan.

<초록>

## 세계화 시대의 사범대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이삼형

세계화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의미한다. 국어교육의 역할은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기업을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들며, 궁극적으로 국어교육이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국어교육은 텍스트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일과 관련된 능력을 길러준다. 그런데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은 기본적 사고는 물론이고 종합적 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사고력은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세상사는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21세기는 비판적, 창의적 문식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텍스트의 비판적, 창의적 이해와 생산을 통해서 구현된다.

그런데 국어교육의 현실태는 텍스트의 비판적, 창의적 이해와 생산과는 거리가 멀다. 그 원인을 텍스트의 비판적, 창의적 수용 능력, 수업 방법, 학습자들에 대한 진단과 처치, 교재 재구성 능력의 면에서 능력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의 부족은 교사의 책임이 아니라 교사양성 과정의 문제이다.

현재 사범대학의 커리큘럼은 국어국문학과 교육학을 결합시킨 유형이 일반적인데, 텍스트의 비판적, 창의적 이해와 생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향과 학습자들을 진단,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사례 연구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을 개선해야 한다.

【핵심이】 세계화, 국어교사 양성 교육과정,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 학습자의 진단과 처치

<Abstract>

## Improvement of the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of KLE

Lee, Sam-hyung

The key word of globalization is competition. Therefore, Korean Language Education(KLE) has to cultivate students who has the competitive power in globalization.

The goal of KLE is to developing students' ability of text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It has a relation with basic thinking components and complex thought. These thought are a source of competition in 21th century as information and globalization era. The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particulary, is required in text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But the real KLE has a long distance of the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We can seek the cause of a long distance at teacher's insufficiency of text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instructional method, diagnosis and management of student language ability. Then, these insufficiency origin is at the curriculum of teacher college.

The general present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of KLE is combined with Korean language literature and Education. We must improve the curriculum of teacher college to the ability of text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and how to diagnose and manage student language ability.

**【Key words】** globalization,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of KLE, ability text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diagnosis and management of student language ability